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의 종교적 정체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진영

(가톨릭관동대학교 · 호텔관광경영전공 · 교수)*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교육전공 · 교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가톨릭계 대학의 사명과 본질
 - 2.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종교적 정체성
 - 3. 가톨릭계 대학교수 현황
- III. 연구방법
 - 1. 질적 연구 설계
 -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 3.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의 엄격성
- IV. 분석결과
 - 1. 자료 분석결과
 - 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가톨릭교육전공 박사과정. jinyoung9212@gmail.com

* 교신저자, runnerchoi@catholic.ac.kr

I. 서론

가톨릭교회는 2천 년의 역사를 통해 교육이라는 숭고한 소명으로 인류의 영적, 지적 성장을 이끌어온 기관이다. 이러한 교회의 교육 사명이 구현된 가톨릭계 대학¹⁾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토대로, 지식과 영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 인재의 요람이다.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적 사고,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가톨릭계 대학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이다.²⁾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깊어 가는 세속화의 물결은 가톨릭계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 되고 있다.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면서도 가톨릭의 근본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구현해야 하는 실천적 딜레마는 이들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다. 특히 가톨릭계 대학의 정수인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가톨릭계 대학의 교수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영적 멘토이자 인생의 안내자로서 소명을 다하는 존재이다.³⁾ 이 교수들은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에

-
- 1) 본 연구에서의 '가톨릭 대학'이란 용어는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의 '가톨릭 대학교'와 동일한 용어로서, 특정 가톨릭계 대학(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계 대학교' 일반을 의미한다(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45쪽에서 재인용)
 - 2) 김웅태, 「오늘날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역할」, 『종교교육학연구』, 12(2001), 282~283쪽.
 - 3) 박종대, 「대화에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 교수의 사도직」, 『경향잡지』, 2000, 22쪽.

매진하며, 학생들에게 가톨릭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동시에, 격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실천적 지혜를 함양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가톨릭계 대학⁴⁾의 교수들이 경험한 종교적 정체성을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살아 숨 쉬며, 가톨릭계 대학의 정체성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검토하였다.

- 가톨릭계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것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 교수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어떠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 형성되고 심화했는가?
- 교수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종교적 정체성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전파되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가톨릭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성과 영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참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4) 한국 가톨릭계 대학 현황(2024년 기준):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① 가톨릭대(서울대교구), ② 광주가톨릭대(광주대교구), ③ 대구가톨릭대(대구대교구), ④ 대전가톨릭대(대전교구), ⑤ 부산가톨릭대(부산교구), ⑥ 수원가톨릭대(수원교구), ⑦ 인천가톨릭대(인천교구), 일반 학생들만을 교육하는 대학: ⑧ 가톨릭관동대(인천교구), ⑨ 가톨릭상지대(안동교구), ⑩ 가톨릭꽃동네대(청주교구), ⑪ 목포가톨릭대(광주대교구), ⑫ 서강대(예수회)

II. 이론적 배경

1. 가톨릭계 대학의 사명과 본질

가톨릭계 대학의 근원적 사명은 복음화(evangelization)와 전인교육의 실현이다. 이 사명은 가톨릭계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이 복음의 진리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영적 가치와 학문적 탁월성을 겸비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숭고한 과업이다.⁵⁾ 가톨릭계 대학은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를 현대 문화의 심장부에 새기는 이 사명을 따르며 구현한다.⁶⁾

가톨릭계 대학은 진리의 탐구와 전수라는 학문적 본질을 넘어, 교육과 연구, 봉사라는 교회적 소명을 동시에 구현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학문적 공동체이다. 또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톨릭계 대학은 교회와 사회를 위한 헌신, 사목적 배려, 문화와의 창조적 소통, 그리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 전통적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귀한 사명을 실천하는 교육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가톨릭계 대학의 연구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제시한 바대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한다. 즉, 인식의 통합,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대화, 도덕적 성찰, 그리고 신학적 전망은 학문 탐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근본적 지침이 된다.⁷⁾ 또한, 가톨릭계 대학은 고유한 종교적 정체성을 대학의 제도와 정책, 교육적 목표, 그리고 대학 문화 전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교육위원회, 『가톨릭 학교 교육 현장』, 1항.

6) 최준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1(2005), 311쪽.

7)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15항, 19-20항.

반에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는 책임을 지닌다.

이는 교수, 직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며, 이를 통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⁸⁾ 가톨릭계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⁹⁾ 이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의 경험은 대학 생활의 핵심적인 토대를 이룬다. 가톨릭계 대학은 ‘대학 공동체’로서 현실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풍요로운 전통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이중적 사명을 수행한다.¹⁰⁾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에서 태동한 가톨릭계 대학은 하나의 살아있는 작은 교회이자, 역동적인 사목의 장으로서, 교육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고유한 선교의 공간이다.¹¹⁾ 아울러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이 제시하는 진정한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²⁾ 가톨릭 신자가 아닌 교수진도 대학이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8) Buckley, M., “The Catholic University and the Promise Inherent in its Identity”, in Langan & O’Donovan(eds.), *Catholic Universities in Church and Society: A Dialogue on Ex Corde Ecclesia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3.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42쪽 재인용).

9) 구본만,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 사명의 실천적 구현, 『가톨릭 신학』, 15(2009), 191쪽.

10) 이종진,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인간연구』, 22(2012), 95쪽.

11)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63쪽.

1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최영희 옮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1999), 201쪽.

호혜적 관계를 형성한다.

1979년의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와 1990년의 「교회의 심장부로부터」(Ex Corde Ecclesiae)는 가톨릭계 대학의 종교적 정체성을 심화하고 강화하도록 촉구한 교황청의 권위 있는 지침서로서, 가톨릭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헌이다.¹³⁾ 이 문헌들은 대학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분명히 하며, 가톨릭교육성은 교육, 연구, 봉사의 삼위일체적 실천을 가톨릭계 대학 교육의 핵심적인 본질로 규정하고 있다.¹⁴⁾

가톨릭계 대학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구성원들에게 영성의 성장과 신앙 실천의 장을 제공하며, 공동체적 연대, 복음적 가치, 그리고 가톨릭 정체성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종교적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가톨릭계 대학은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함께 영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¹⁵⁾

2.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종교적 정체성

가톨릭계 대학은 그리스도 정신과 복음적 메시지를 기반으로 교육, 연구, 봉사를 실천하는 독특한 학문 공동체로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직업 훈련을 넘어 진리 탐구와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13) 최준규·김경이·원순식, 「무엇이 가톨릭대학교를 진정한 “가톨릭”으로 만드는가?」, 가톨릭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2007, 4~9쪽.

1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1997, 12, 28), 16-17항.

15) Peracullo, J. C., “The contours of religion through the narrated photographs of Philippine Catholic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Studies in Catholic Education*, 2023, pp. 1~16.

한다. 이러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총장, 학장, 처장 등 리더십의 주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대학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협력적 참여가 필수적이다.¹⁶⁾ 모든 가톨릭계 대학은 그리스도적 현존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며, 가톨릭적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¹⁷⁾ 제2부 일반적 규범 제4조는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가톨릭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증진할 역량과 의지를 지닌 교수를 채용해야 하며, 교수들은 대학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비가톨릭 교수의 비율이 대학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계 대학은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고 가톨릭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신자와 비신자 교수 모두가 가톨릭 정체성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신앙의 빛으로 인도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영적 성장과 신앙의 여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¹⁸⁾ 특히 가톨릭계 대학의 정체성은 교수진의 자질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교수들은 대학 공동체 내에서 교회의 사명을 구현하는 핵심 주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삶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학문적 활동과 가르침이 가톨릭 정체성과 교의에 충실할 때, 대학은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더욱 풍요롭게 실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

16) 최준규,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51~52쪽.

17)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1~4항. 이 글에서 이 문헌은 ECE로 약칭함.

18)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1999, 189쪽.

다.¹⁹⁾

박종대(2003)는 「대희년에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 교수의 사도직」에서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세 가지 핵심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의 가르침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기반으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여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것, 셋째,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은 가톨릭계 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²⁰⁾ 이처럼 가톨릭계 대학의 교수들은 삶과 신앙, 전문 지식과 그리스도교 진리를 통합하며, 학문적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신앙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소명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신앙적 성숙을 돕는 데 중점을 둔 가톨릭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반영한다.²¹⁾

가톨릭계 대학의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기존 문화에 새로운 요소들이 축적되어 독특하고 고유한 형태로 발전한다. 이러한 문화는 대학의 분위기, 물리적 환경, 교육이념, 비전과 목표, 교육과정 등 다양한 상징 체계를 통해 구체화되며, 이를 매개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종교적 정체성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특히 대학 문화는 교수진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주관적 동기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계 대학은 ‘공동체’의 관점을 중심에 두어 조직의 목표를 넘어 구성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 성장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²²⁾

19) 원종철, 「가톨릭 대학의 존재 이유」, 『신학과 사상학회』, 60(2007), 293쪽.

20) 박종대, 「대희년에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 교수의 사도직」, 『경향잡지』, 2000, 21~24쪽.

21) ECE I, 22항.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의 신앙심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이 대학의 교육이념과 비전을 깊이 내면화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할 때, 조직과 개인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²³⁾ 따라서 가톨릭계 대학은 그리스도교적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동시에 교수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구성원 간의 신앙적 연대와 성장의 토대를 다질 수 있다.

3. 가톨릭계 대학교수 현황²⁴⁾

가톨릭계 세 대학의 재직 성직자·수도자 교수 현황을 살펴보면, 각 대학의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대는 성직자 교수의 수가 2020년 14명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17명으로 증가한 반면, 수도자 교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1명이 재직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는 성직자 교수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0명, 2021년 35명, 2022년 42명을 기록했으며, 수도자 교수 역시 2020년 1명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2명으로 늘어났다.

22) 이병호·박재신·강경채·최준규,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성에 대한 교사 인식 탐구: 근거 이론적 접근」, 『교육문화연구』, 30(2024), 79쪽.

23) 김윤옥,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4, 24쪽.

24) 이 연구에서는 국내 12개 가톨릭계 대학 중 사제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 중에서 60여 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가톨릭적 전통을 지닌 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서강대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들의 현황을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2023)(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7개월 수행)에서 발간한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반면, 서강대는 다른 두 대학과 달리 성직자 교수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0년 16명이었던 성직자 교수가 2021년에는 15명, 2022년에는 13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 대학의 고유한 환경 및 인적 구성의 특성과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재직 성직자·수도자 교수 현황²⁵⁾ (단위: 명)

대학명	성직자			수도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가톨릭대	14	17	17	1	1	1
대구가톨릭대	30	35	42	1	2	2
서강대	16	15	13	0	0	0

가톨릭계 주요 3개 대학의 신자 전임교수 비율과 교수 성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55.5%의 신자 비율을 유지하다가 2022년 56.6%로 증가하며, 세 대학 중 가장 높은 신자 전임교수 비율을 보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20년 49.42%, 2021년 48.83%, 2022년 49.16%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약 49%의 신자 비율을 유지했다. 반면, 서강대학교의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다른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상대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나타난 성사 현황에서는 대학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2020년 1명의 세례자, 2021년과 2022년 각각 2명의 세례자를 배출했으며, 2021년에는 2명의 견진자를 배출하여 꾸준한 성

25)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 비엔제이, 2023, 47~48쪽.

사 활동을 보여주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21년에 1명, 2022년에 2명의 세례자를 배출하며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강대학교는 2021년에 1명의 세례자를 배출했고, 2022년에는 4명의 세례자와 2명의 견진자를 배출하며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한 성사 활동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황은 각 대학이 교수진의 가톨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신자 전임교수 비율의 안정적 유지와 성사 활동의 증가는 각 대학이 가톨릭 정체성의 내면화를 위해 제도적 및 환경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적 사명을 넘어 교수진의 영적 성장과 신앙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가톨릭계 대학의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표 2〉 전임교수 신자 현황²⁶⁾ (단위: 명, %)

대학명	2020		2021		2022	
	신자/ 재직자	비율	신자/ 재직자	비율	신자/ 재직자	비율
가톨릭대	141/254	55.5	144/262	55.0	154/272	56.6
대구가톨릭대	298/603	49.42	291/596	48.83	293/596	49.16

가톨릭계 3개 대학의 교수 신앙단체 현황은 각 대학의 고유한 신앙 활동을 통해 가톨릭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톨릭대학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수성서모임’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신앙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모임은 성경을 매개로 한 영

26) 서강대의 경우는 전임교수 신자 수에 있어 2018년 155/408(38.0%), 2019년 167/411 (40.6%)로 조사되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조사된 교수 신자 현황자료가 없음, 위의 보고서, 48~50쪽.

적 성장을 도모하고,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3〉 교수 성사 현황²⁷⁾ (단위: 명)

대학명	세례자			건진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가톨릭대	1	2	2	-	2	-
대구가톨릭대	0	1	2	-	-	-
서강대	0	1	4	-	-	2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교수회’와 ‘교수 레지오’라는 두 가지 신앙단체를 운영하여 교수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교수회는 대학공동체 내에서 신앙과 학문적 사명의 통합을 모색하며, 교수 레지오는 복음화와 기도 활동 중심의 사도직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교수들의 신앙적 성장을 돕고, 대학공동체 내에서의 가톨릭 정체성을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레지오’, ‘전례단’, ‘남교수기도모임’, ‘여교수기도모임’ 등 다양한 신앙단체를 운영하며 교수들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신앙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 활동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앙을 증진하고, 가톨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대학의 신앙 활동은 교수들의 개인적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대학공동체 전체의 가톨릭적 분위기와 정체성을 강화하며, 가톨릭 교육이념 실현의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27) 위 보고서, 50~51쪽.

〈표 4〉 교수 신앙단체 현황²⁸⁾

(단위: 명)

대학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단체명	회원수	단체명	회원수	단체명	회원수
가톨릭대	교수성서모임	8	교수성서모임	9	교수성서모임	10
대구 가톨릭대	교수회	138	교수회	133	교수회	116
	교수 레지오	34	교수 레지오	32	교수 레지오	30
서강대	-	-	전례단	3	남교수 기도모임	8
					여교수 기도모임	10
					전례단	3

〈표 5〉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는 활동반 성지순례, 피스메이커스, 애니어그램 피정 등 다양한 신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성경특강, 신앙특강, 교직원 성지순례, 예비신자 성지순례, 가톨릭 교수회 피정을 진행하였다. 서강대학교는 건진성사 교리 및 예식, 장엄미사, 십자가의 길, 성모의 밤, 노고산 성지 신심, 그레고리안 미사, 사순 특강 등 다채로운 신앙 활동을 통해 교수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가톨릭계 세 대학 모두에서 신앙프로그램의 활발한 시행이 제한되었으며, 이는 대학의 종교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 대학은 비대면이나 제한적 대면 방식으로 신앙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각 대학의 신앙프로그램은 주로 교목처(또는 교목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대학교수들의 신앙생활을 심화시키고,

28) 위 보고서, 58~61쪽.

가톨릭계 대학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수들이 신앙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대학 공동체의 영적 풍요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했다.

〈표 5〉 교수 신앙프로그램 현황²⁹⁾ (단위: 명)

대학명	2020년		2021년		2022년	
	프로그램명	참가자 수	프로그램명	참가자 수	프로그램명	참가자 수
가톨릭대	-	-	활동반 성지순례	2	피스메이커스	2
					애니어그램 피정	2
대구 가톨릭대	-	-	-	-	성경특강	10
					신앙특강	3
					가톨릭 교수회 피정	45
서강대	전진성사 교리 및 예식	3	전대사수여를 위한 장엄미사	7	노고산성지신심, 라틴어미사	2
			미얀마 민주화 평화 발언 및 십자가의 길	2	사순 특강	2
			성모의 밤	3	성모의 밤	4

29) 위 보고서, 55~60쪽.

III. 연구방법

1. 질적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톨릭계 대학에 재직 중인 신자와 비신자 교수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정체성의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상학은 Husserl(1970)에 의해 체계화된 학문적 방법론으로, 특정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의 체험을 의미 중심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체험과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체험된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의 깊은 이해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³⁰⁾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Van Kaam의 실존주의적 접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Giorgi의 경험적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간 공통된 속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³¹⁾을 활용하였다.

30) 이마나 · 김동일 · 김병남 · 이은경 · 조미정 · 주은하 · 추양, 『질적연구방법』, 동문사, 2022, 118~119쪽.

31) Colaizzi(1978)의 연구 단계는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전사한 인터뷰 자료를 당시 분위기를 회상하며 읽고, 2단계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주요한 진술이나 문장 등을 추출하고, 3단계는 추출한 진술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한다. 4단계는 추출된 의미 중 공통된 주제(themes)만을 모아서 주제군(theme clusters)을 형성하고, 5단계는 주제에 따라 분석된 자료를 기술하고, 6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경험 현상의 공통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도출하고 마지막 단계인 7단계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정상원, 「질적연구: 열 다섯가지 접근」, 김영천, 이현철(편), 『현상학적 질적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2017, 159~194쪽).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성을 지닌 대상자를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톨릭계 대학인 C 대학을 사례로 삼아, 가톨릭 신자 교수 4명과 비신자 교수 4명(타 종교 2명, 무교 2명)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연구참여자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참여자 구성은 다양한 신앙적 배경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경험하는 교수들의 인식을 균형 있게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표 6〉 연구참여자 특성

이름	종교	교육 근속연수	C 대학 근무연수	영세기간
참여자 A	개신교	28년	17년	-
참여자 B	천주교	12년	7년	51년
참여자 C	무교	20년	16년	-
참여자 D	천주교	13년	7년	45년
참여자 E	천주교	10년	4년	29년
참여자 F	천주교	20년	8년	50년
참여자 G	무교	10년	7년	-
참여자 H	개신교	25년	23년	-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윤리에 따라 개인의 익명성, 심층 인터뷰 녹음에 따른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과 연구종료 후 원자료 폐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각각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고, 그들의 감정과 비언어적 정보 등을 관찰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에 자료수집을 완료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자 교수와 비신자 교수 총 8명의 연구 참여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C 대학 H 교수의 연구실에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듯, 면담 질문지³²⁾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인식하는 종교적 경험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미국 NCEA(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2023)에서 발간된 National Standards and Benchmarks (Second Edition) 및 Ozar, L. A. 외 (2019)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면담 질문지는 종교적 특성과 대학 이념(4문항), 리더십 및 거버넌스(3문항), 학문적 우수성(6문항), 운영 활력(2문항) 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면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음성과 텍스트 기록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연구자 노트에 기록된 상세 내용을 전사 자료에 추가로 메모하여 분석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면담 전사 자료, 문헌 자료, 연구 노트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당시의 현장 분위기, 참여자의 언어 습관과 특징, 표정 및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32) 면담 질문은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인식하는 종교적 경험과 관련된 문항 추출에 관하여 다음 두 자료를 참고할 것. NCEA(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National Standards and Benchmarks*, Washington, D.C.: NCEA, 2023; L. A. Ozar, P. Weitzel-O'Neill, T. Barton, E. Calteaux, C. J. Hunter & S. Yi, "Making a Difference: The Promise of Catholic School Standards", *Journal of Catholic Education*, 22(2019), pp. 154~185).

〈표 7〉 심층 면담 질문지 구성

분류	세부질문
종교적 특성 및 대학이념	1.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고유한 종교적(가톨릭적) 특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의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종교적 특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2. 가톨릭계 대학으로서의 긍정적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3. 가톨릭계 대학으로서의 부정적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4.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대학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십 및 거버넌스	5. 가톨릭계 대학의 리더(총장 및 처장단)들은 대학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6.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리더들의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대학이 준비해야 할 거버넌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문적 우수성	8.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해당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가톨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해당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어떠한 가톨릭적 특성의 학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가톨릭 정신에 부합하는 커리큘럼과 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교수진 간의 협업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톨릭계 대학 간 교양대학인 CU공유대학 ³³⁾ 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 수업에서 가톨릭 미덕과 같은 학습의 정서적 차원을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3.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중 가톨릭 교육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교육적 사명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활력	15.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운영 활력을 위하여 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 현재 가톨릭계 대학들은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가톨릭 대학들의 공동교육은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가톨릭 인본주의에 기반한 공동선을 추구하고 균형 잡힌 인간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 교육과정을 제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엄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자신의 선(先) 경험을 배제하고(판단 중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실히 재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공 교수들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심층 면담 질문지의 객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종교적 정체성 경험을 분석한 결과, 128개의 주요 진술에서 23개의 주제(하위 범주)와 9개의 범주(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9개 범주는 ‘사랑과 봉사 실천을 통한 진실성 추구’, ‘가톨릭적 환경 경험’, ‘성직자 및 수도자들의 역할’, ‘종교적 색채를 통한 효과’, ‘가톨릭 정신 구현과 가톨릭 교육과정’, ‘정서적 지원 및 영성과 윤리 추구’, ‘교육이념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동’, ‘가톨릭계 대학 간 협업 증대’,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에서 도출된 진술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공하고 있다(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홈페이지: <https://www.cu12.ac.kr>).

〈표 8〉 연구 결과: 범주, 주제, 주요 진술로 형성된 의미

범주	주제	주요 진술로 형성된 의미(개념)
범주 1. 사랑, 봉사 실천을 통한 진실성 추구	진정성 추구	① 배움이라는 진실성 추구, ② 진정성 추구 이념에 맞춘 활동, ③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정체성 가치관 부여, ④ 가톨릭 이념의 공정성 및 자율성 부여, ⑤ 가톨릭 이념의 실행, ⑥ 사명선언문을 통한 종교적 가치 추구
	보편적 정신과 인간 존중	① 가톨릭 정신의 생활 양상을 보여줌, ② 가톨릭은 보편적 정신, 인간 존중, ③ 가톨릭만의 이점 어필 필요, ④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내 환경조성, ⑤ 바르게 행동하는 계 선교, 바르게 사는 것, ⑥ 신자 교수와 비신자 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끌어줄 수 있으면 선교, ⑦ 가톨릭 교수회의 교수와 학생을 노력하는 활동, ⑧ 사랑과 봉사 실천, ⑨ 가톨릭 정신으로의 정화
	가톨릭 미덕	① 가톨릭 미덕-나눔, 사랑, 비폭력 대화, ② 차별하지 않는 그런 부분, ③ 행정처리에 있어서 공명정대, ④ 본부에서 교수인 구성원의 기정된 행동에 대한 죄와 벌이 명확해야 함, ⑤ 약자에 대한 지원, ⑥ 구성원에 대한 표면적 배려가 아니라 공정성 필요, ⑦ 동등, 공평, 공동체 존중이 윤리적으로 선행, ⑧ 정체성 구현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범주 2. 가톨릭적 환경 경험	가톨릭적 분위기 인식	① 성당 건물, 십자고상이 있는 행정부서, ② 경천애인사상(敬天愛人事狀),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교수직, ③ 가톨릭 이념, 십자고상, ④ 보직자 사무실에 붙어있는 설립 정신을 볼 때, ⑤ 성당 활동 중심
	전례 참여 환경조성	① 교직원 미사 독려, 보직자분들도 미사 참여 필요, ② 선교를 위해 리더들이 앞장서서 미사 참여, ③ 주일미사, 종강 미사, 성가대 등, ④ 미사를 통한 종교적 특성을 느낌, ⑤ 교직원 미사 참여, ⑥ 미사 전례, 성가대, ⑦ 전례 등 신앙공동체 참여, ⑧ 특별미사 참여, 주일미사는 본당으로 참여
	성지순례를 통한 가톨릭 정체성 이해	① 성지순례를 통한 가톨릭 정체성 이해, ② 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지순례, ③ 신자, 비신자 구분 없는 조직구성원의 체험 중요
	신앙공동체 활동	① 회의의 시작과 끝에 기도, ② 식전 식후 감사기도, ③ 신심 행위, 신앙공동체에 대한 동기부여, ④ 신앙공동체의 봉헌 활동 제도화 필요, ⑤ 공동체 안에서 사랑, 봉사, 정의 실현
범주 3. 성직자, 수도자들의 역할	신부님, 수녀님들의 핵심적 역할	① 성당을 벗어나는 그런 공간에서의 역할, ②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역할 중요, ③ 학생들의 모듬 활동에 대한 신부님과 수녀님의 역할, ④ 신부님과 수녀님과의 상담 및 교류

	신부님, 수녀님들의 교양 교육과정 강의	① 신부님, 수녀님들의 필수 종교교과목 강의 및 신앙적 용어 사용, ②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종교 교과가 이론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운영, ③ 주로 신부님들이 종교 교양과목 담당
범주 4. 종교적 색채를 통한 효과	가톨릭계 대학으로의 긍정적 효과	① 축제 및 체육대회에서 주류를 뺀 것이 더 건전하고 긍정적, ②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안, ③ 가톨릭 이미지의 클래식함, 엄중함, ④ 공동체적 사랑과 따뜻함이 느껴짐, ⑤ 학생에게 사제 장학금 수여, ⑥ 가톨릭이 전국에 있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가톨릭계 대학으로의 부정적 효과	① 가톨릭 신자 교수 수 조사 시 비신자에게 종교적 성격이 강하게 느껴짐, ② 가톨릭 색채가 너무 강한 경우 부정적으로 보임, ③ 보수적이라는 느낌, ④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음, ⑤ 다른 종교의 학생들이 종교 교과를 들을 시 반발, ⑥ 가톨릭 이념 및 방침을 내세울 때 종교적으로 보임, ⑦ 교수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부담감을 줌
범주 5. 가톨릭 정신 구현 가톨릭 교육과정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가톨릭 교육과정	① 학습자 중심의 가톨릭에 관한 교과목, ② 가톨릭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체계 확립, ③ 교육과정에서의 가톨릭 정체성 부각, ④ 신입생 대상 가톨릭 종교 특성을 알리는 필수교과, ⑤ 배움을 실천하는 교양 종교 교과, ⑥ 도덕적, 윤리적, 영적 차원의 교육과정 필요
	봉사와 인간중심 커리큘럼	① 인간학 교양 교육과정, ②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교과, ③ 사회봉사센터의 교과, ④ 가톨릭 정신 반영 라틴어 수업, ⑤ 수업에서 라틴어 어원을 기반으로 가톨릭적 내용 설명하는 교과, ⑥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사제시간을 이끄는 교과, ⑦ 성경 중심 해석 교과, 성경 중심 영화 교과, ⑧ 기독교에서 하듯 성경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과 필요, ⑨ 정신적 힐링, 명상 훈련 교과
	봉사 정신 구현과 자아 성찰의 교육방법	① 강의식 주입이 아닌 조별학습, ② 학생의 적극적 참여 및 윤리실천, ③ 발표를 통한 자아 성찰, ④ 학습자 중심 자율적 수업, ⑤ 학습 동기부여, ⑥ 봉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해외 봉사나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⑦ 학생들 간 친밀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⑧ 토의 수업 지향, 학생-교수와의 권위 최소화, ⑨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학습의 질 추구
범주 6. 정서적 지원 및 영성, 윤리 추구	영성과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	① 윤리성 부각과 정서적 차원으로 평가, ② 정서적 안정감과 영적 능력 추구, ③ 상담, 영성,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④ 영성에 대한 대학원 필요, ⑤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지원, ⑥ 신체적, 정서적, 영적 능력 향상을 위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수업 활동 개설 필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의식	① 종교 환경에서의 AI, ChatGPT 등에 대한 윤리의식, ② 사이버상에서의 성 윤리, 성의 젠더에 대한 문제, ③ 리더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과 종교적인 실천 필요, ④ 윤리는 공정성으로 대체, ⑤ 교수자 입장 평가 시 학생 과제의 윤리적 측면 평가 필요
범주 7. 교육이념 실현 공동체 활동	가톨릭 교육이념 실현 부서	① 심리상담 및 복지 관련 부서, ② 행정처와 교무처, ③ 장애 센터 및 봉사센터를 통한 사랑실현 부서, ④ 인성센터, ⑤ 교목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통·협력· 공동체	① 마음의 문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사명, ② 상대방이 나와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소통, ③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서로 존중, ④ 교수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 ⑤ 소통형 강의실 구축 필요, ⑥ 학생-교수, 교수-운영진 간 열린 채널 필요, ⑦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
	대학의 운영 활력	① 인적자원의 보충 및 확보, ② 교구의 재정적 뒷받침, ③ 학생들이 공감 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대의 필요성, ④ 누구나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 필요, ⑤ 교수가 마음 편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대학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함
범주 8. 가톨릭계 대학 간 협업 중대	가톨릭계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① CU12 공유대학은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② CU 공유대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③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교육과정 공유, ④ 가톨릭계 대학 간의 융합 교육과정
	가톨릭계 대학 간 동기부여 및 협업	① 가톨릭 정체성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 ② 가톨릭계 대학 간 협업 중대
범주 9.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지역공동체 와의 연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와의 연결	① 지역사회의 신자들에게 관심과 호응, ② 지역 성당 연계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기금과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 ③ 경계가 뚜렷한데 종교로 맺어진 가족임
	지역사회와 의 협력체계 구축	① 지역상담센터들과의 이해관계자 공유, ② 지역민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③ 임시절벽의 시대에 가톨릭 교구, 지역사회 성당 연계 필요

1. 자료 분석결과

1) 범주 1: 사랑, 봉사 실천을 통한 진실성 추구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의 교육이념에 대해 교수들이 진정성을 추구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mission)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든 신앙에서 이러한 진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가톨릭 정신이 보편적인 인간 존중의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 인권 존중, 평등, 공평, 공정, 명징대와 같은 가치는 대학 공동체와 교육의 핵심으로 간주하였으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이러한 보편적 가치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가톨릭의 미덕으로서 나눔, 사랑, 비폭력 대화, 평화 지향 등이 가톨릭 정신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의 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배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는 그 어떤 진정성에 관한 내용이 부각 되겠지만, 특히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에 있어서 배움이라는 진실성을 추구하고 있고요.”(참여자 A)

“저는 가톨릭 정신이 굉장히 보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간성 회복과 인간 존중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F)

2) 범주 2: 가톨릭적 환경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성당 건물, 강의실 및 행정 부서에 부착된 십자고상, 그리고 성직자가 교수로서 강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가톨릭적 환경과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의 최고 리더인 총장이 교목실의 주요 일정에 동참하거나 교직원 미사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가톨릭적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해당 대학이 가톨릭 학교임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교목실의 신부, 수녀, 직원, 학생들과 함께하는 단합된 활동, 특히 성지순례를 통해 종교적 경험을 확장하고 신앙 생활에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인식하였다. 더불어, 학생상담센터, 인성센터, 장애인센터, 봉사센터 등에서 실천되는 사랑과 봉사,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 활동이 가톨릭 정체성을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임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로는 건물, 성당 건물이 있다. 그다음에 십자고상이 행정부서나 그런 데 있다. 물리적인 특성들이 주로 가톨릭 학교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참여자 D)

“학교의 교육이념,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경천애인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가장 가톨릭적인 특성으로 [중략]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교수직도 하시고 교내에 또 학교 성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특성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참여자 F)

“성당에서 하는 모임에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중략]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더 알아가게 되고,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활동을 저는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참여자 A)

3) 범주 3: 성직자, 수도자들의 역할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제인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신자와 비신자 교수들은 신부와 수녀들과의 교류, 성당 활동과의 연계된 역할, 그리고 일상생활 속 상담 등을 통해 종교적 경험을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성당뿐만 아니라 연구실이나 기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교류와 영적 상담, 정서적 차원의 지원은 성직자들의 역할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가톨릭계 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종교적 특성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종교적 특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양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는 ‘인간학’과 같은 종교 교과를 성직자들이 강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강의를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지역의 불우한 시설을 방문하거나 봉사 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 커리큘럼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은 신앙을 학교 밖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상담, 그리고 대학생들의 고민 상담 역할을 해 주시고 [중략] 교수님 연구실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참여자 A)

“지금 커리큘럼은 1, 2학년들 필수과목들을 성직자들이 종교교과목으

로 하여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커리큘럼은 이론강의 위주라 [중략]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참여자 F)

4) 범주 4: 종교적 색채를 통한 효과

“일단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뭔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종교적인 [중략] 뭔가 따뜻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상의 긍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B)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 쪽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참여자 H)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이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라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의 긍정적 효과로 종교적 이미지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정신, 헌신적 사랑, 따뜻함과 같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 및 전국의 가톨릭 관련 학교 및 단체와 협력할 가능성을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이 대학 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강요될 경우, 교수와 학생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경험은 가톨릭계 대학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학문적 자유와 개인의 신앙 자

유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 범주 5: 가톨릭 정신 구현 가톨릭 교육과정

“교육적인 측면은 전공과 지금 교양과목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해서 [중략] 학습 수요자에게 가톨릭 이념에서도 될 듣고 싶은 건지를 구체화시켜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면 그 자체가 가톨릭계 대학의 정체성이 잘 부각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A)

“이것은 제가 가톨릭 신앙인이어서 그런지, 제 성격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 [중략] 교수자로서의 권위 이거를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합니다.”(참여자 F)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에서 운영되는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톨릭 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인간학’과 같은 교과목이 가톨릭 이념 구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봉사 실천, 자아 성찰, 인간 중심의 교과목을 추가로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수업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학생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친밀감과 상호 배려를 강조하며,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가톨릭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6) 범주 6: 정서적 지원 및 영성, 윤리 추구

“상담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 또는 사회적인 연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극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영성과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돕기 위해 심리검사나 영성 상담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영성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종교적 관점에서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윤리적 측면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AI를 활용한 과제 제출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윤리적 판단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교수들뿐만 아니라 총장이나 리더와 같은 고위직 구성원들에게도 고차원적인 윤리의식, 도덕성, 그리고 종교적 실천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특성이 대학의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가톨릭계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7) 범주 7: 교육이념 실현 공동체 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의 교목처(또는 교목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신자와 비신자 교수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것이 가톨릭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공동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행정처, 교무처, 인성센터와 같은 부서들이 가톨릭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행정처가 가톨릭 정신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수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사랑과 상호 배려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함께, 교수들이 대학에서 근무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교수들이 대학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톨릭계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교목실에서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좀 문턱을 낮춰서 쉽게 뭔가 이렇게 접근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자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B)

“누구나 즐거운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야 합니다. [중략] 교수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학교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참여자 H)

8) 범주 8: 가톨릭계 대학 간 협업 증대

“협업을 가톨릭계 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 자체에서 융합이나 [중략] 가톨릭계 대학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쟁률이 높고 좋은 대학교 수업은 듣고 싶어 하지만 그 학생들은 과연 낮은 데 것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구멍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참여자 E)

“공유대학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 간 공유 교육과정인 CU12 공유대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공유대학과 같은 융합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톨릭계 대학 간 교육 협력이 가톨릭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유 교육과정이 수도권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접근성과 교육 환경에서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이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과 함께 독특한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협업은 가톨릭 교육이념을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 및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톨릭계 대학 간 교육이념의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9) 범주 9: 가톨릭계 대학으로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신자들, 우리 신앙심과 연결된 교우들, 성당들, 교구 내 본당들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가톨릭 학교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고, [중략]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서 이분들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 은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F)

“지역공동체와의 경계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중략] 어떻게 보면 종교로 맺어진 가족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경계가 세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참여자 E)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이라는 보편 신앙이 가톨릭계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톨릭 신앙과 연결된 교우, 성당, 그리고 교구 내 본당들과의 협력을 통해 입학, 취업, 장학금, 재정 및 기금 마련 등의 주요 과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가톨릭계 대학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종교적 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가톨릭계 대학과 지역공동체 간의 경계가 뚜렷하여 이러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가톨릭’이라는 신앙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

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하나의 종교적 가족으로 보고 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톨릭계 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 결과분석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의 종교적 정체성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가톨릭계 대학에서 교수들이 인식하는 종교적 경험, 그 경험의 형성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에서 종교적 경험이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교수들은 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 철학, 캠퍼스 문화 속에서 가톨릭적 특성을 일상적인 업무와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자신의 학문 분야와 가톨릭 신앙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학문과 신앙의 융합을 시도하는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셋째, 미사, 봉사 활동과 같은 공동체적 종교 행사를 통해 가톨릭적 정체성을 체험하고 있었다.

교수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정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과 전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계 대학에 처음 부임한 교수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가톨릭적 특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학문적 전문성과 가톨릭 신앙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성찰하며 종교적 정체성을 내면화하였다. 궁극적으로, 신자와 비신자 교수 모두 가톨릭적 가치를 교육과 연구 활동에 실천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교수들의 종교적 경험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도

출되었다. 대학에서 제공되는 성사 및 신앙프로그램과 교육이념 수행이 관련된 경험,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영성과 윤리 가치의 실천과 관련된 경험, 대학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 그리고 가톨릭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수들이 가톨릭계 대학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인지하는 종교적 정체성 경험은 대학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며, 이는 대학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들은 사랑, 봉사, 인간 존중 등 가톨릭 정신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며, 교육과 상담, 봉사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성당, 십자고상 등 가시적 종교적 상징물이 구성원들의 일상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 환경이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직자와 수도자 교수진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영적·정서적 성장에 기여하며, 대학의 종교적 특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더불어, 가톨릭 정신을 반영한 특화 교과목, 봉사 활동, 성찰 중심의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톨릭계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교회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학문적 탐구와 종교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며, 특히 리더십 및 교육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실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대학과 교수, 직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가톨릭계 대학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톨릭계 대학

은 종교적 가치와 학문적 탐구, 교수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현재 가톨릭계 대학은 시장 논리에 따른 인문학의 쇠퇴와 학문적 구조조정, 대학의 기업화, 인구감소,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가톨릭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경험하는 대학의 종교적 정체성을 탐구하여, 이들이 가톨릭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종교적 경험과 그 경험의 사회적 가치, 당위적 규범, 그리고 보편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톨릭계 대학의 종교적 정체성 구현을 위한 아홉 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첫째, 사랑과 봉사 실천을 통한 진실성 추구로, 교수들은 가톨릭 정신의 핵심으로 사랑과 봉사를 통해 진실성을 추구하며 인간 존중, 약자 배려, 인권, 동등, 공평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둘째, 가톨릭적 환경 경험으로, 성당 건물과 십자가상과 같은 물리적 상징물을 통해 가톨릭적 특성을 인식하였으며, 신부와 수녀 교수진의 존재가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역할로, 신부와 수녀들은 학생 상담과

영적 지도, 종교 관련 교양 강의를 통해 가톨릭 정신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넷째, 종교적 색채를 통한 효과로, 사랑과 공동체 정신, 헌신적 봉사의 이미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종교적 강요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다섯째, 가톨릭 정신 구현 교육과정으로, 인간학, 봉사 실천, 자아성찰 등 가톨릭 정체성에 부합하는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정서적 지원 및 영성, 윤리 추구로, 대학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영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고차원적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일곱째, 교육이념 실현 공동체 활동으로, 교목실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공간과 시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덟째, 가톨릭계 대학 간 협업 증대로, CU12 공유대학과 같은 교육과정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톨릭 정체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융합 교육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홉째,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역 교회와 교우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가톨릭 사상, 영성, 사회교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를 통해 구성원들의 가톨릭 정체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학문 분야와 가톨릭 신앙 간 대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교수들의 영적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넷째, 국내외 봉사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가톨릭 사회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톨릭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가톨릭계 대학 간 또는 가톨릭계 대학을 보유한 교구와 수도회 간의 연계를 통해 공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가톨릭계 대학의 사명인 전인교육과 복음화 사명에 대해 교회의 실천 의지가 강화될 때, 가톨릭계 대학은 교수들이 신앙의 빛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은 학문적 전문성과 가톨릭 신앙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도와 대학의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최영희 옮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_____,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1997.12.28.,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2000), 193~208쪽.
- 구본만,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 사명의 실천적 구현」, 『가톨릭신학』, 15(2009), 173~212쪽.
- 김웅태, 「오늘날 가톨릭계 대학교수의 역할」, 『종교교육학연구』, 12(2001), 277~304쪽.
- 김율옥, 「가톨릭교육자 ‘되어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4.
- 박중대, 「대회년에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 교수의 사도직」, 『경향잡지』, 2000, 21~24쪽.
-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전자북.
- 원종철, 「가톨릭 대학의 존재 이유」, 『신학과 사상학회』, 60(2007), 272~312쪽.
- 이미나 · 김동일 · 김병남 · 이은경 · 조미정 · 주은하 · 추양, 『질적연구방법』, 동문사, 2022.
- 이병호 · 박재신 · 강경채 · 최준규,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성에 대한 교사 인식 탐구: 근거이론적 접근」, 『교육문화연구』, 30(2024), 77~98쪽.
- 이종진, 「가톨릭 인본주의와 대학의 역할」, 『인간연구』, 22(2012), 83~109쪽.
- 정상원, 「질적연구: 열 다섯가지 접근」, 『현상학적 질적 연구』, 김영천, 이현철(편), 아카데미프레스, 2017.
- 최준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1(2005), 309~333쪽.
- _____,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35(2011), 41~66쪽.
- 최준규 · 김경이 · 원순식, 「무엇이 가톨릭대학교를 진정한 “가톨릭”으로 만드는가?」, 가톨릭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2007.
-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홈페이지: <https://www.cu12.ac.kr>
-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 가톨릭계 대학 효과성 연구』, 비엔제이, 2023.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가톨릭 학교 교육 현장』, 2006, 제2차 바티칸 공

- 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1965.12.28.)」,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585~603쪽.
- Buckley, M. “The Catholic University and the Promise Inherent in its Identity”, in Langan & O’Donovan(eds.), *Catholic Universities in Church and Society: A Dialogue on Ex Corde Ecclesia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3.
- 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NCEA), *National Standards and Benchmarks*, Washington, D.C.: NCEA, 2023.
- Ozar, L. A., Weitzel-O’Neill, P., Barton, T., Calteaux, E., Hunter, C. J., & Yi, S., “Making a Difference: The Promise of Catholic School Standards”, *Journal of Catholic Education*, 22(2019), pp.154~185.
- Peracullo, J. C. “The contours of religion through the narrated photographs of Philippine Catholic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Studies in Catholic Education*, 2023, pp.1~16.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가톨릭 정체성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128개의 구성 의미, 23개의 주제(하위 범주), 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톨릭계 대학교수들은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통한 진정성 추구, 가톨릭적 환경 경험, 정서적 지원과 영성, 윤리적 가치 지향, 가톨릭 정신을 반영한 교육과정 수행, 교육이념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동, 가톨릭계 대학 간 협력,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교회적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치를 학문적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톨릭계 대학은 신자와 비신자 교수 모두가 가톨릭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수들은 학문적 전문성과 가톨릭 신앙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대학의 복음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가톨릭계 대학, 대학 교수, 종교적 정체성, 가톨릭 교육이념, 현상학적 접근, 가톨릭 정신, 복음적 사명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ligious Identity Experiences of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s

Han, Jinyou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Majored in Hotel & Tourism Management · Professor)

Choi, Jungu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Majored in Catholic Education ·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igious identity experienced by professors at Catholic universities and to identify the core elements of Catholic identity through this investigation. Utiliz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study derived 128 constitutive meanings, 23 themes (subcategories), and 9 overarching catego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professors at Catholic universities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ecclesial mission” through various practices, including pursuing authenticity via love and service; experiencing Catholic environments, emotional support and spirituality, and ethical value orientation, implementing curricula that reflect the Catholic spirit; engaging in community activities to realize educational ideals;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Catholic universities; and building connections with local communities. These professors strive to embody the values of the Christian Gospel within their academic endeavors.

Accordingly, Catholic universities bear the responsibility of creating a culture and environment where both Catholic and non-Catholic faculty members can cultivat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atholic spirit. In such an environment, professors can harmoniously integrate their academic expertise with the Catholic faith, effectively fulfilling the university’s evangelical mission.

Key words: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Professor, Religious Identity, Catholic Educational Philosophy, Phenomenological Approach, Catholic Spirit, Evangelical Mission

투고 접수: 2025. 02. 11.

심사 완료: 2025. 04. 02.

게재 결정: 2025. 04. 08.

